

韓國의 木造建築樣式

金 東 賢

(文化財研究所 / 保存科學研究室長)

우리나라 木造建築의 樣式史的 高찰은 원래 木造建築이 우리나라 땅에 세워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高찰의 對象時期로 잡아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木造建築의 上限時期가 高麗時代 이전으로 올릴 수 없는 실정에 있어 對象物은 自然히 현존 最古의 건물로부터 잡고 있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현존 最古의 木造建築은 1972년 完全解体修理 때에 발견된 上량문에 의해 高麗 恭愍王 12년(1363년) 屋蓋部分을 크게 補修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安東 소재의 鳳停寺 極樂殿이다. 이 건물은 完全解体修理 이전부터 榮州의 浮石寺 無量壽殿보다는 앞서서 樣式을 갖춘 건축으로 추정은 하여 왔지만 뚜렷이 앞선다는 근거가 없어 拱包部材의 古式性格이라던지, 架構에서 보이는 古態 등만으로 浮石寺 無量壽殿에 앞서리라는 판단이었다.

上記 두 建物은 모두 柱心包式, 즉 기둥 위에만 拱包를 배치하고 있는 형식이어서 柱心包式이라는 樣式分類의 한 類型으로 기준이 되었고 이 형식과 다른 또 하나의 형식인 多包式, 즉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拱包를 配置하는 形式이 柱心包式과 함께 현존 建築樣式을 두 主流의 계통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의 建築樣式으로는 翼工式이라 하는 유형, 즉 柱心に 包를 배치하나 柱心包式과 結構內容이 다른 形式 등으로 나누고 있다.

日本의 木造建築樣式은 和樣·大佛樣·禪宗樣으로 나누고 있는데 大佛樣은 日本의 鎌倉時代에 새로운 建築樣式이 中國으로부터 들어올 때 日僧 重源이 奈良 東大寺 大佛殿의 復興에 그 새로운 양식을 채용하였고 하여 大佛樣이라 부르고 있으며 그 후 다시 禪宗敎와 함께 들어온 양식을 禪宗樣이라 부르며 이들 두 양식이 들어오기 전에 日本에 있었던 建築樣式을 日本式이라는 뜻에서 和樣이라고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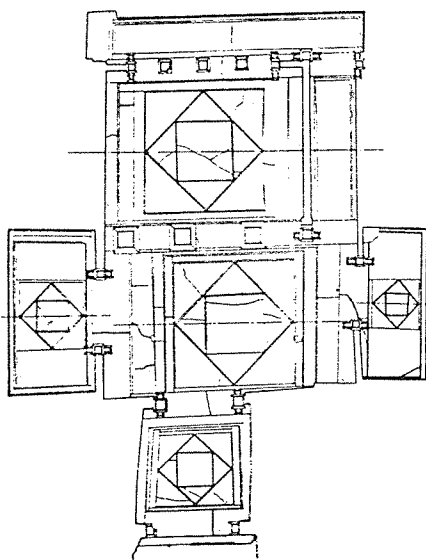


圖1 冬壽墓 平面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거 日人들은 우리나라 木造建築樣式 구분을 하면서 天竺樣이나 唐樣이나 하기도 하고 또는

疎組式이나 詰組式이나 하기도 하였다. 天竺樣이나 疎組式은 우리가 지금 柱心包式이라 부르는 建築樣式이고 唐樣이나 詰組式은 多包式과 같은 내용의 建築樣式을 말함이었다. 日人들도 해방 이후 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建築樣式을 天竺·唐樣 등으로 불러 왔으나 이 樣式의 구분 명칭이 建築樣式 내용과 맞지않는 명칭이라 하여 요즈음은 모두 大佛樣이나 禪宗樣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과거 日人들은 지금의 柱心包式을 天竺樣이라 하고 이 양식은 中國의 南宋系統樣式이 高麗時代에 들어온 것이며 多包式은 唐樣이라 하여 中國의 元나라에서 유행하던 양식이 高麗末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물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南宋이나 元에서 柱心包式이나 多包式이 유행하던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中國의 경우에는 그 이전, 紀元前 後漢으로부터 木造建築의 技法이 水準級에 있었고 특히 柱心包式은 그 역사가 깊으며 多包式의 祖形도 이미 9世紀 중엽에 현존 木造建築에 나타나고 있어 그 역사를 낫출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日人學者들이 세운 柱心包式의 南宋傳來說과 多包式의 元傳來說이 그대로 通說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修正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中國의 木造建築樣式은 뚜렷이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拱包의 結構形式에 따라 下昂式과 無下昂式으로 나누고 또 이들 형식을 計心式과 偷心式으로 분류하여 下昂式과 計心, 偷心이 서로 調合되어 計心下昂式이나 偷心下昂式이 되기도 하고 無下昂式과 調合되어 計心無下昂式과 偷心無下昂式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拱包樣式은 현존하는 唐代 이후의 建造物에서 이미 보이고 있어 下昂式이 앞선 樣式인지 아니면 無下昂式 계통의 양식이 앞서는 것인지 그 先後 관계가 아직도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中國·日本의 木造建築樣式의 基本的 분류 基準部位는 기둥 위에 놓이는 拱包이므로 이 拱包樣式은 결국 東北亞圈 木造建築을 이해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核心部材라 할 수 있다. 拱包 이

외에도 木造建築樣式史에 重要的 處는 架構形式이라던지 기타 柱間裝置·屋蓋部 등 여러 處에서 서로 다른 樣式의 차이와 時代的 變遷을 찾아 木造建築을 분류해 나갈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樣式에 민감하게 變化過程을 表出하였던 處가 바로 拱包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木造建築에 있어 高麗의 建造物은 鳳停寺 極樂殿, 浮石寺 無量壽殿, 修德寺 大雄殿, 成佛寺 應眞殿·極樂殿 그리고 江陵 客舍門 등 몇 안되는 高麗期의 建造物 중 柱心包系統의 木造建造物이 대부분이며 心源寺 普光殿(1374년), 釋王寺 應眞殿 등이 多包式 建造物로 남아 있다.

이들 建造物들은 수없이 많았던 建造物들 중 다행히 戰災를 입지않고 오늘에 남아 있는 建造物일뿐 만드시 이

들 建造物들이 우리나라 木造建造物의 樣式史를 논할 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단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적 자료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遺例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木造建築의 樣式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木造建築이 이땅에 정확히 시기의 建造物로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하나 남아 있는 木造建造物이 없는 까닭에 13世紀의 建造物로부터 對象資料로 잡고 있으나 다행히 高句麗의 壁面古墳에 그려진 殿閣圖라던가 古墳構造 내용을 통하여 樣式史에 대한 再整理의 論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新出中國資料들과의 比較研究가 建築史研究에 큰 과제로 남아 있다.

高句麗의 壁面古墳을 통해 당시의 木造建築樣式을 보면 拱包는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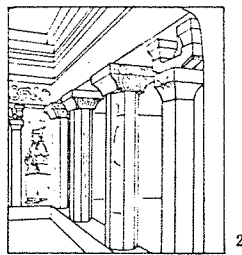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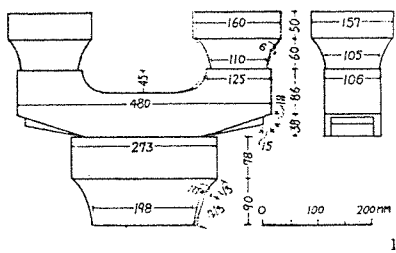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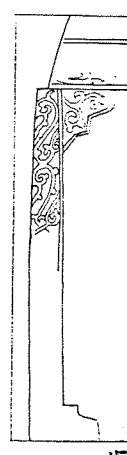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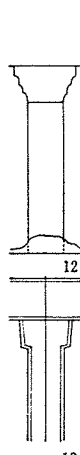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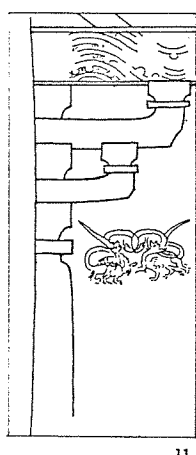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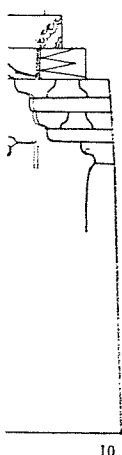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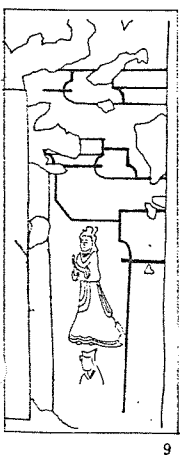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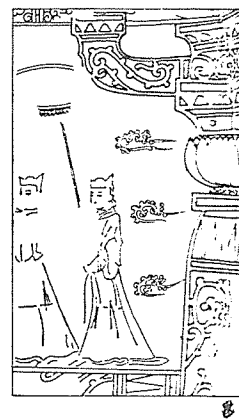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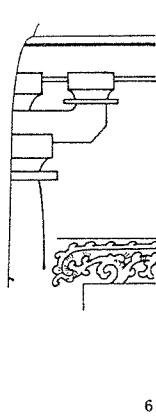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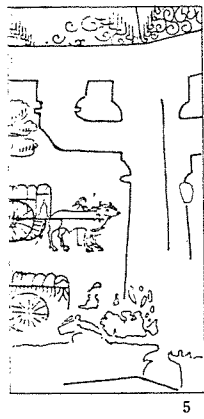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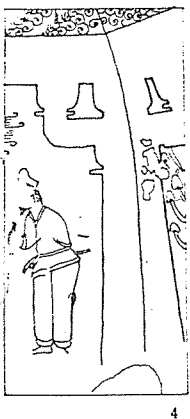


圖2 高句麗 壁面古墳의 拱包

1. 冬壽墓 石造雙斗
2. 冬壽墓 內部
3. 八清里 古墳
4. 角抵塚
5. 無踊塚
6. 龜甲塚
7. 安岳2號墳
8. 修山里古墳
9. 倉神塚
10. 安岳1號墳
11. 雙楹塚
12. 伏獅里古墳
13. 通溝12號墳
14. 三室塚
15. 環文塚



위에만 올려놓은 소위 柱心包式이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357년에 造營한 黃海道 安岳郡 柳雪里의 冬壽墓인데 이 古墳에서 보면 構造体에서 方柱와 8角柱가 사용되고 기둥 위에는 柱頭와 檐遮·小累 등이 보이며 建築圖에는 厨房·肉庫·牛舍·車庫 등의 그림이 있어 4世紀 중엽 그것도 佛敎가 高句麗에 전래되기 15년 전이며 栱包材가 柱上에 올려지고 建物の 外形이나 内部構造가 정비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冬壽墓 이후의 5~6世紀 古墳에서도 계속하여 柱上 栱包가 나타나고 建築圖도 城廓의 그림을 비롯해 殿堂·門樓·其他 附屬建물이 나타나고 있어 木造建築의 發殿過程을 이해할 수 있다. 壁畵古墳에 나타난 기둥과 栱包와의 관계를 보면 거의 모두가 柱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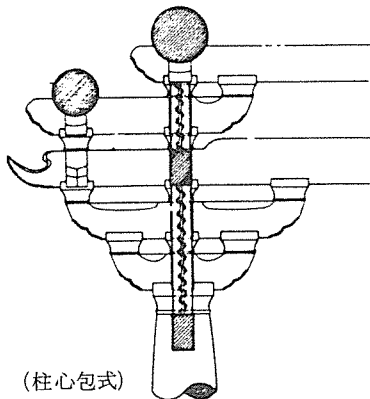
에만 栱包를 배치한 柱心包式形式이며 栱包構成은 階段形柱頭로부터 雙斗式(二斗式), 三斗式, 二重三斗式 등 다양하고 柱頭나 小累形은 굽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굽의 형태는 曲線形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檐遮는 마구리를 直切하고 下角을 斜切한 古式이 많았으며 특히 冬壽墓의 雙斗檐遮의 下角은 檐遮舌이 있어 東晉系統의 檐遮에서 많이 볼 수 있는 形態이고 日本의 藥師寺塔에 이 수법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이들 栱包에서 보면 北魏보다 좀 더 앞선 古式 系統인 雙斗栱包가 있고 더욱이 檐遮의 特異한 手法과 굽받침 등의 形狀을 보면 後漢末에 遺例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高句麗 건축의 組形은 王胡十六國과 東晉時代쯤에 형성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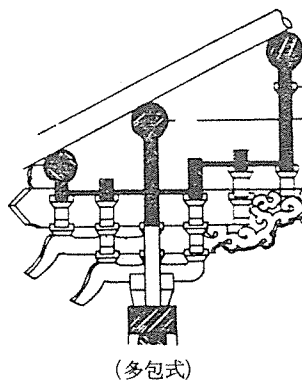
百濟時代의 木造建築樣式은 遺存의 건축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두 개의 小品遺物에서 建築樣式 一部分을 추정할 수 있다. 小品中 하나는 扶餘 窺岩에서 出土된 山景文磚(約 30cm의 方磚)으로 百濟末期의 壁磚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이 磚 上左邊에 건물 한채가 보인다.

이 建物は 基壇 위에 놓이고 지붕에는 鷗尾가 보이는 椽椀狀지붕 형태인데 磚의 右邊에 僧侶像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건물은 佛堂이라 생각된다. 내용은 확실히 표현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지붕의 표현이다. 이 지붕은 椽椀狀지붕인데 지붕면이 중간 부분에서 일단 椽椀狀지붕형태와 동일한 수법을 나타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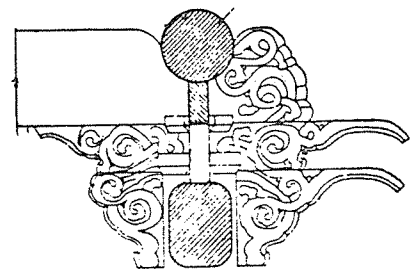
한국



(柱心包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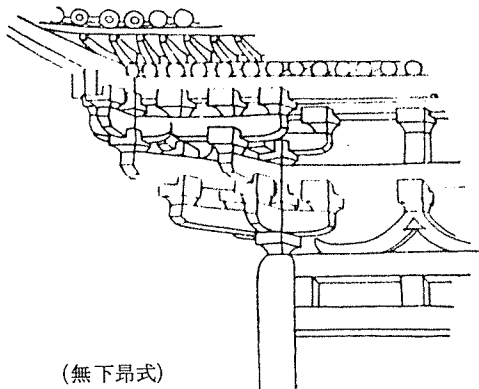


(多包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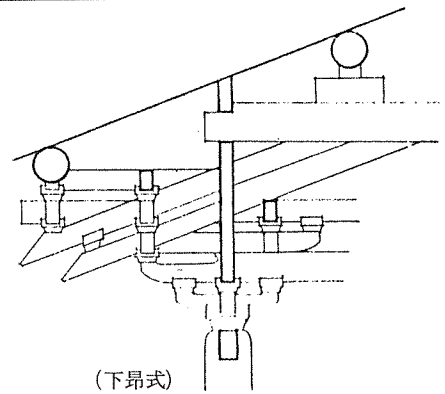


(翼工式)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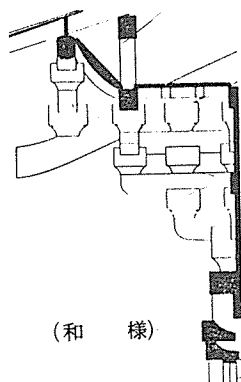


(無下昂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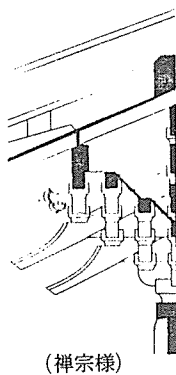


(下昂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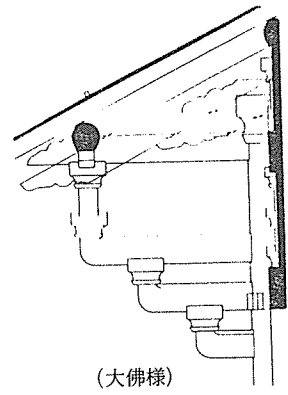
일본



(和樣)



(禪宗樣)



(大佛樣)

圖3 韓·日·中 栱包樣式 比較圖

어 서로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연구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겹침팔작지붕형식은 中國의 경우 後漢時代의 家形明器를 비롯하여 121년 경의 渠縣馮煥闕, 德陽黃許鎮出土 画像塼 등에 있으며 이들 모두가 四川地方에서 발견된 것이 특징이며 六朝時代에 다시 유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百濟의 겹침팔작지붕은 6세기 이후 六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양식은 日本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던 것 같다. 또 하나의 小品은 1947년 扶餘 天王寺址 出土로 현재 扶餘博物館에 陳列 중인 金銅製 小塔 一片으로 百濟末期쯤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遺物이다.

이 小塔片에서 주목되어야 할 곳은 역시 栱包에 있다. 栱包構成을 보면

기둥 몸에서 突出된 栱첨차가 下昂을 받들고 있으며 小塔 네귀에서는 45度 방향만으로 栱첨차와 下昂이 있어 日本의 法隆寺 金堂 遮陽間(裳階:모꼬시)의 것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小塔은 小品이므로 모든 表現方法이 省略的인 表出方法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法隆寺系 건축과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는 관심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新羅의 木造建築은 高句麗나 百濟와 같이 남아 있는 遺構가 없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잔존하고 있는 遺址나 文獻에 의하면 他二國과 같이 水準級의 木造建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統一後에는 国力이 膨大해지고 他二國의 文物과 唐의 文物을 흡수하여 統一新

羅의 독자적인 建築樣式을 表出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實例로는 典型化되었던 寺院의 一塔一金堂式이 二塔一金堂式으로 변화하고 佛國寺와 같은 특유의 建築空間 창조라던지 石窟庵의 특이한 造形活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佛國寺 多寶塔과 같은 우수한 작품이 나타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三國遺事에 보면 王族이하 일반 民家에 이르기까지 建築制限令을 만들어 身分에 알맞는 집을 짓도록 하고 瓦堂이나 겹처마의 사용 제한 및 栱包·丹青·金銀製 建築裝飾具 등의 사용 여부를 규제하였던 사실들을 보면 建築活動이 풍요하였음을 알 수 있을만하다. 실제의 木造建築樣式을 알 수 있는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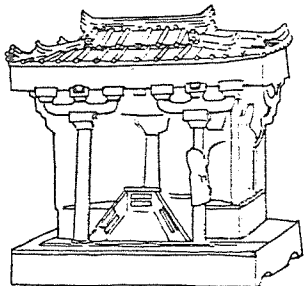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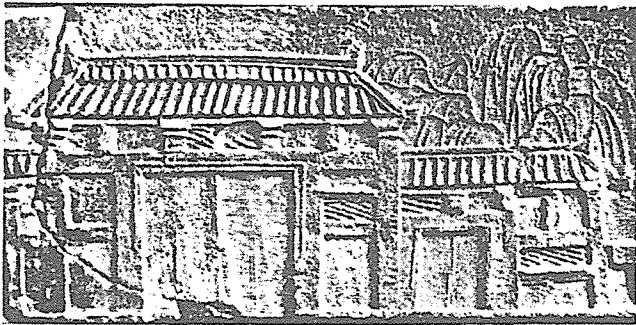


圖4 겹침 팔작지붕 (上: 德陽黃許鎮出土画像塼 下: 牧馬山 後漢10號岩墓陶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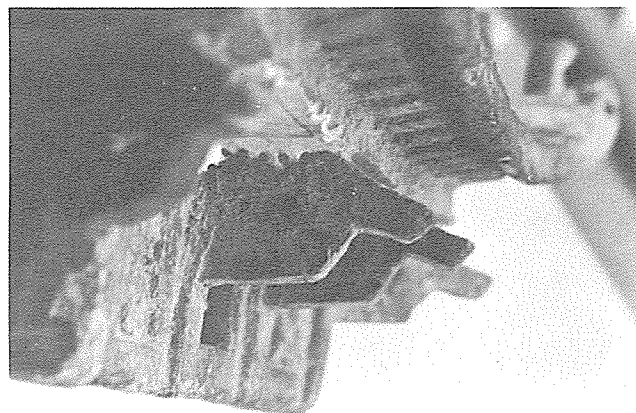


圖5 扶餘天王寺址出土金銅塔片 栱包



圖6 新羅華嚴經 經畫 建築圖

寺址나 宮址에 나타난 平面形式인데 古新羅의 木造建築 平面은 대부분 建物內에 內陳柱(안두리기둥)가 있는 것이 많았고 그 平面形에 의하면 대규모 建築은 지붕이 우진각형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은 中國의 경우를 보면 唐나라 때의 대규모 建築은 거의가 우진각지붕이고 日本의 경우도 몇몇棟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진각지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高句麗 건축은 壁面古墳에 나오는 建築圖에서 팔작지붕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百濟의 山景文博이나 中國의 六朝時代의 遺品에서 팔작지붕을 갖춘 자료들이 나오지만 古新羅의 木造建築과 직접 연결시켜 推論할 만한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統一新羅期가 되면 좀 사정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대규모 건축에는 우진각지붕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며 작은 규모의 建築에는 팔작지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中國의 경우 현존하는 南禪寺 大殿(782년)과 佛光寺 大殿(857년)의 두 建築을 비교하여 보면 대규모 建築인 佛光寺의 것은 우진각이고 소규모의 南禪寺는 팔작지붕 形式을 취하고 있다.

統一新羅의 建築細部에 대하여는 또 湖巖美術館所藏品인 新羅寫經表裝画(754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기둥 위에만 栱包를 얹은 柱心包式이며 栱包는 柱頭로부터 짜였고

柱頭 위에는 頭工을 올리고 小累·檐遮·小累順으로 짜여 道里를 받고 頭工과 짜여진 山彌檐遮가 行工檐遮를 받게 하였다. 行工檐遮 위에는 소위 三斗式 小累配置로 이들 서로가 外目道里를 받게 하였다. 栱包의 構成部材 細部技法을 보면 柱頭와 小累의 굽은 曲線굽으로 하고 檐遮에는 栱眼도 선명하다. 이 建築圖는 統一新羅 木造建築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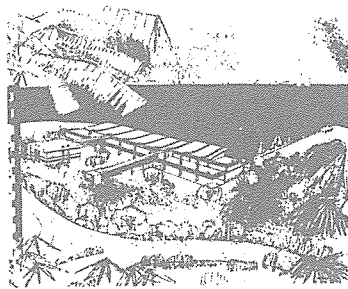
이 그림의 내용을 石造建築에 나오는 建築部材 자료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 技法에 의한 것이며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기둥에는 알맞게 배흘림이 있었고 기둥 위에만 栱包를 얹은 柱心包式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첨차나 주두·소로 등의 짜임은 高麗時代 建物로 현재 남아있는 建物들, 특히 浮石寺 祖師堂이나 鳳停寺 極樂殿에서 볼 수 있는 技法들이 統一期에 사용하였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慶州 雁鴨池 발굴조사 시 연못 안에서 出土된 建築部材(栱包의 檐遮·小累·柱頭·연목·부연·평고대·연함·난간부재·선자연 등)들을 보면 그 수법이 高麗期에 세웠던 建築部材들과 거의 같은 技法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統一新羅期의 建築樣式은 그대로 자연스럽게 高麗期에 이어져 전해 내려오고 統一期の 建築은 그 以前代의 建築이 조 건없이 統一期에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前代의 樣式이 조

금의 변함도 없이 後代의 建築에 이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고 부드럽게 時代의 변천에 따라 그 時代性·社會性에 부합되도록 변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예는 高麗末期 이후 朝鮮初에 걸친 木造建築 양식에서 볼 수 있고 그 변천은 週期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이 말은 4分之1 世紀 또는 2分之1 世紀間의 建築樣式 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적어도 1世紀 또는 1世紀半 정도의 年代差가 있는 두 建築間의 비교는 어렵지 않게 구별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建築樣式的 변화 속도 이외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아주 서서히 흡수 소화시키면서 변해졌음을 과거 建築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高麗末에 柱心包式이 전래되었다던가 多包式은 元의 영향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建築에서만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高麗期의 現存 建築들은 前代의 建築傳統이 그 建築 안에 담겨져 있고 외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곳에 그 영향력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多包式과 같은 建築樣式은 이미 元代以前에 中國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던 建築樣式인 만큼 반드시 元代에 들어와 그 양식을 받아들였다고 결론짓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다운 우리사이 청탁으로 멀어진다